

[태국] 지진, 중국시장 회복 지연 등 외부 변수 속 관광시장 회복 주요 대응 동향

'25. 04. 29(화) / 방콕지사

□ 관광동향

○ 태국,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태국 관광산업 피해 대책 마련 중

- 태국 주요 연구기관은 이번 지진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이 최대 300억 바트(약 1조 2천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특히, 관광 부문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관광객 약 4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태국항공협회(ATT)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이틀간 항공 예약률 40~60% 감소, 특히 중국발 예약은 60% 급감

○ 태국, 국제관광 수입 목표 조정 및 관광 전략 재정비

- 태국 정부는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미얀마 지진 여파 등으로 '25년 국제관광 수입 목표 2조 3,200바트(약 99조 2천억 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에 총리는 올해 목표를 '19년도 수준인 2조 바트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관광 전략의 재검토를 지시
- 태국 관광체육부와 관광청은 고급 관광시장과 디지털 노마드 등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 강화, 중국 외 대체 시장 공략, 건강·웰니스 관광 부문 전략 강화 및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2선 도시 관광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 태국여행사협회-태국관광청, 방태 중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논의 중

- 태국여행사협회(ATT)는 최근 중국인 해외여행지 선호 조사에서 태국이 4위에서 7위로 하락하는 등 방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 시장 회복이 시급하다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3억 2천만 바트(약 137.3억 원) 규모의 보조금에 대해 태국관광청(TAT)과 논의 중
- 해당 보조금은 중국 20개 중소도시에서 태국으로 운항하는 1,000편의 전세기 대상 약 30만 바트(약 1,300만 원) 씩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 및 언론, 인플루언서 등 약 400명을 초청하는 '메가 팸투어'를 개최해 중국시장에 태국 여행 집중 홍보 및 관광 신뢰 회복에 활용할 계획이라 밝힘
- * 태국(인바운드)여행사협회는 '25년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가 '19년 수준인 1억 5천 5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태국, 외국인 입국자 디지털 입국카드 등록 의무화

- 태국 관광체육부는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 등 출입국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입국자 대상 '타일랜드 디지털 입국카드(Thailand Digital Arrival Card: TDAC)'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기존 종이 입국 카드(TM6)는 폐지되며, 오는 5. 1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객은 태국 방문 시 TDAC 등록이 의무화되고 방문 3일전부터 온라인 등록 가능

○ 태국관광청, 미국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관광시장 위축 전망

- 태국관광청(TAT)은 최근 미국인 해외여행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미국시장 동향 및 여행심리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 밝힘
- '25. 1분기 방태 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한 320,631명으로 미국인 관광수요 유지를 위해 북미 항공노선 확대 및 프로모션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

○ 태국 송크란 연휴, 태국인 해외여행지로 중국·일본·유럽 선호

- 태국여행업협회(TTAA)는 올해 송크란 연휴(4.12~16)기간 태국인 인기 해외여행 목적지는 1위 중국, 2위 일본, 3위는 유럽이 될 것으로 예상
- 협회는 올해 태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 '19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특히 중국이 100만 명 이상의 태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고, 일본 역시 10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화산·지진 이슈로 일부는 일본 여행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태국, 송크란 축제 기간 방태 외국인 관광객 42만 명 방문

- 태국관광청은 송크란 축제 연휴 기간(4.12~16) 방태 외국인 수는 총 421,394명, 관광수입은 64억 5천만 바트(약 2,768억 원)로 집계됨. 주요시장 중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인 시장은 유럽(42%), 오세아니아(29%), 남아시아(22%), 미국(13%) 순으로 조사
- * 올해 송크란 축제 전국 매출은 287억 바트(약 1조 2,323억 원)로 전년 대비 17% 증가

□ 기타동향

○ 태국 디지털 광고시장, 전년대비 10% 성장 전망

- 태국 디지털광고협회(DAAT)는 올해 태국 온라인 광고비 지출과 관련 국내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디지털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기반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350억 바트(약 1조 5,1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부적으로 디지털 광고 지출 상위 5개 산업은 1) 스킨케어 61억 바트(약 2,575억 원), 2) 자동차 29억 바트(약 1,224억 원), 3) 비알콜 음료 29억 바트(약 1,224억 원), 4) 통신 25억 바트(약 1,055억 원), 5) 생활용품 21억 바트(약 886억 원) 순으로 조사

* 광고지출 상위 광고 플랫폼은 24년 기준 Meta, YouTube, TikTok 순이며, 올해는 TikTok이 YouTube를 제치고 2위에 오를 전망

□ 지사의견

- 태국 관광산업은 미얀마 강진, 중국 관광시장 회복 지연,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태국 정부는 '25년 국제관광 수입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디지털 노마드 유치, 고급 웰니스 관광 확대 등 관광전략을 재정비하고 관광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한편, 공사는 위축된 태국 방한수요 회복을 위해 태국 유력 신용카드사인 크룽타이 카드(KTC)와 공동으로 태국 내 고급 수요층 타깃 방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방한상품 고급화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며, 또한 한국 여행 정보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는 태국어 '1330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는 등 태국 소비자에게 보다 친근한 방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방한여행 신뢰 회복에 나설 계획

※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및 태국 관광체육부 홈페이지 통계 자료 참고, 항공사 및 여행사 동향 정보 수집, 태국 관광청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

붙임

관광통계 및 항공운항 정보

□ 관광통계

- (태국인 방한규모) '25.3월 기준 26,000명('19년 동기 대비 49% 회복) * 추정치

구 분	24.12월	25.1월	25.2월	25.3월 *추정치
태국 → 한국	32,742명	20,447명	20,598명	26,000명
('19년 대비)	(-41.3%)	(-50.4%)	(-47.5%)	(-51.0%)

- (한국인 방태규모) '25.3월 기준 120,775명('19년 동기 대비 83.6% 회복)

구 분	24.12월	25.1월	25.2월	25.3월
한국 → 태국	189,324	209,065	168,090	120,775
('19년 대비)	(+2.4%)	(+0.4%)	(-8.8%)	(-16.4%)

□ 항공동향

- (한-태 항공노선) '25. 4월 기준 주 162편 운항('19년 동기 대비 약 72% 회복)

항공사	주간 운항현황
대한항공	방콕-인천 주 21회(매일 3편 운항)
	푸켓-인천 주 7회(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7회(매일 1편 운항)
아시아나항공	방콕-인천 주 7회(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7회(매일 1편 운항)
타이항공	방콕-인천 주 21회(매일 3편 운항)
제주항공	방콕-인천 주 7회(매일 1편 운항)
	방콕-부산 주 7회(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4회(목, 금, 일, 월 운항)
진에어	방콕-인천 주 7회(매일 1편 운항)
	방콕-부산 주 7회(매일 1편 운항)
	푸켓-인천 주 4회(목, 금, 일, 월 운항)
티웨이	방콕-인천 주 7회(매일 1편 운항)
	방콕-대구 주 7회(매일 1편 운항)
에어아시아	방콕-인천 주 10회(매일 1편 및 화, 목, 일 추가 운항)
에어부산	방콕-인천 주 7회(매일 1편 운항)
	방콕-부산 주 7회(매일 1편 운항)
에어프레미아	방콕-인천 주 5회(일, 월, 수, 목, 토 운항)
이스타항공	방콕-인천 주 7회(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4회(토, 일, 수, 목 운항)
	치앙마이-부산 주 2회(일, 토 운항)
총 계	주 162편